

서울特別市 美觀地區 審議委員會의 實情

姜明求

一九六〇代에서 七〇代 서울特別市の 零細하고 底質이 亂立되던 建築相의 定立을 위하여 一九七一年七月 美觀地區審議委員會를 創設하고 近七年에 이르는 現在까지 古參委員의 한사람으로 그동안의 功過, 보람, 懷抱 또는 所感을 全体가 아닌 少数 不誠實會員의 落伍防止를 위하여 말하고자 한다.

于先 처음 始作할때에는 確實한 規定도 못세운채 外國의 無秩序한 都市의 前撤을 밟지 않고 整頓된 都市成長의 理想만을 希望으로 建築의 質的인 向上을 높이기 위한 作業에서 부터 始作하여 都市美觀이라는 觀點에서 建築士들의 個性과 創意性을 害치지 않는 範圍內에서 漸進的으로 建築의 質的向上과 아울러 既存建物도 都市美를 害치고 있다고 萬人이 認定될 때에는 修正作業까지를 始作하였다. 当初에서 부터 委員들中에는 我趣의 發言도 있고 一方作家的 作品 浸害를 避하는 論爭等으로 審議 規準도 차츰 整理하였으나 急速히 늘어나고 있는 都市人口의 膨脹과 交通量의 重量으로 都市美를 大局의 見地에서 보아 서울市の 날로 늘고있는 建築의 質的인 向上 뿐 아니라 都市計劃과 都市政策이라는 次元에 立脚한 都市景觀에 이르기까지의 廣範한 多角的 視點에서 建築도 建築個體뿐이 아닌 한 都市의 要素로서 審議되어 가는 눈부신 變化와 새로운 都市現像의 急到來로 因한 対応 對備가 미처 整理되지 못한채 規定도 만들며 審議도 해야 하는 번거로운 作業이 되고 말았다. 그러므로 委員構成도 大學의 建築工學科教授, 都市計劃分野의 權威教授 都市交通問題의 專門家 建築美術, 造景의 權威있는 分科 言論界人士等까지를 網羅한 社會各層이며 特히 建築이 主가 된 委員會構成이나 建築專工委員中에는 設計實務에 經驗이 豊富한 分과 學究의에만 깊이 專念한분 또는 高邁한 理想을 내세우는 分들로 서로 相違된 各自意見으로 完全히 合意를 못내리는 境遇도 있었으나 太半 以上이 近接된 一致로 討議됨으로 여러 委員들의 意見을 參

考삼아 서울市 自体가 決定을 내리기 쉽도록 市の 行政을 補助하기 위한 委員會이었다. 近七年이라는 긴 歲月 동안에 無理한 業務量을 短時日內에 處理해야 함으로 審議 規準이나 施行細則도 數次 變更 補完되는 渦中에 어느 建築士에게서는 怨聲도 들을 때가 있고 또 一方 建築主나 建築士로 부터는 보다 나은 建物과 作品으로 昇化되었음을 感謝해 온다는 法言을 들을때에는 흐뭇할 때도 있다. 그래도 그 七年이라는 歲月 동안에 建築士들의 作品的 向上이나 實施竣工된 成果의 向上된 業績과 事實을 否定할 建築士는 없는 것으로 自慰와 보람을 느끼고 있다.

그러나 近來에 와서도 所謂 一級建築士가 提出한 圖書中에서도 建築法規는 勿論 水準未達의 建築計劃과 近接 他建物의 同一한 詳細圖量産이 露出되는가 하면 A地區에 既히 許可된 設計圖가 B地區에 그냥 그대로 位置만 變更하여 提出되는 破廉恥한 建築士의 所謂 創作品이 再湯으로 使用된 일도 있고 집장사의 設計를 代書提出한 비틀린 平面, 立面에 까지집式 양상한 서까래構造의 住宅量産들을 일삼는 一部少數의 建築士로 인하여 全体 建築士의 權威墜落은 勿論 一般市民의 建築士에 對한 不信感마저 일으키게 됨으로 反戾를 하면서도 같은 建築人으로서 얼굴이 화끈할 때도 있다. 또 더러는 都市計劃 政策上으로 建築主의 被害를 未然에 防止키 위한 保留等으로 巷間의 物議도 있었으나 大部分의 返戾圖書의 實情을 보면 水準未達의 建築計劃 建築法規의 抵触되는 不誠實한 建築士들의 自己辯明을 爲한 不平 不滿으로 推則도 된다.

이러한 建築本然의 計劃上인 技術不足과 不誠實로 審議返戾되는 過程을 第一正確하고 早速히 建築士에게 傳達 是正 指導 發展시킬수 있는 役割은 바로 建築士協會 서울市支部의 큰 事業이라 生覺되어 昨年부터 數次에 걸쳐 審議實況을 建築士協會에서 直接 參觀 記錄토록 慫慂

한바 있으나 參觀招請에는 應하지도 않고 그저 一方的인 不平 不滿을 하더니 뒤늦게나마 建築士協會 서울시 金盛支部長이 반갑게도 今年들어 三月六日字 委員會에 參觀出席하여 直接 자리를 같이 하며 그 實情을 把握했으므로 크게 期待됨으로 繼續 委員會狀況을 定期事業으로 參席하고 그 結果를 正確히 會員들에게 通知面談하며 委員會 決議事項의 成否의 原因과 方策의 指導로 協助있기를 全委員들은 다같이 要望하고 있다.

參考로 오랜동안의 數없는 審議에서 規準히 確定된것은 士協會支部를 通하여 各會員들에게 傳達된것으로 알고 있으나 그 밖의 論議되어 오던 主要骨子의 要旨를 記憶하는대로 參考로 列記하며 建築士여러분들과 같이 研究 向上을 거듭 부탁드린다.

1. 作品的 見地에서 본 都市建築

한마디로 變化있는 統一이 바람직하다. 淸溪川 6街의 商街처럼 너무 一律의인 零細의建築이 아니라 各建물이 個性的이면서도 統一된 거리를 느낄수 있는 丹正하고 調和를 이루고 精誠어린 建築作品이 提出될 때에는 모든 委員들이 마치 客地에서 旧友를 만난듯 모두 반가워 한다.

2. 建築의 水準向上

이제 國民所得도 늘고 国力도 伸張되었으므로 建築의 水準도 先進國나름의 向上이 있어야 한다. 自動車의 增加로 넓어진 道路邊에 旧態依然한 2~30坪建物は 不適當하다. 또 外壁處理도 세멘트몰탈위에 水性페인트를 칠한 알파한 零細性은 免하고 좀 더 恒久的인 資材로 本格化된 建築의 水準을 向上할 때라고 生覺된다. 五六層이나 되는 店舖 事務所建물에 九孔炭스토브 煖房은 不適當하다. 公共性을 띤 建物에는 제대로 計劃된 男女別 便所의 区分設置 地下室, 보이러裝置 煙筒設置는 勿論 駐車施設을 完備한 建築物로 將次 再開發의 必要性도 없는 周圍環境으로 計劃된, 將來를 내다보고 設計된 建물이어야 한다.

3. 平面計劃과 外觀

于先 經濟的인 構造計劃으로 모든 機械, 電燈의 配置가 可能한 機能的인 平面이면 外觀은 그 모듈들에 의하여 自然히 個性美가 나타난다.

住宅의 浴槽가 2,400M×4,000M라든지 大便所 한개둔 스페이스의 크기가 1,500M×2,400M 넓이의 殘余利用이 그대로 圖面化되어 提出되는 圖書가 許多하다. 이러한 計劃들은 建築士의 無識과 計劃不在로 自己所有建物일 境遇 絶對 容納이 안될 原則이 없는 不誠實한 作品이라 볼 수 밖에 없다.

4. 外觀色彩

立地條件 如何에도 左右되지만 旧太平路 南大門近方の

黃原色 建物이나 空港路에 있던 真紅色 真黑色 등의 原色은 建物の 外觀色으로는 美觀上 避하여야 하며 或間補色으로 混用한다 하더라도 危險한 建物採色이다. 可能限 淡色 白灰色 中間色 또는 親近色(皮膚色)等 周圍建物과 調和될 수 있는 色이 바람직하다.

5. 住宅의 平面과 外觀

個人住居이므로 建築士가 잘 調整指導한 平面인지 집장사들의 속임수 平面 立面인지 大概 委員들이 判讀된다

現代住宅内の 1,800M×2,000M의 房은 非人間的의 設計이다. 玄關 浴室 便所의 出入口 門等도 計劃上 水準未達이 아직도 많이 設計되고 있으나 이러한 平面들은 建築士가 아닌 집장사들의 아이디어의 強要로 理解할수 있으나 지붕形, 물매方向等 文化生活의 用器로서의 建築本然의 姿勢가 아닌 非建築的인 工法이므로 建築士들은 이를 調整해야할 義務가 있다고 본다. 삐뚤어진 지붕을 強調하기 위하여 非合理的인 平面과 이그리진 住宅은 隣近住民에게까지 視覺公害를 끼치게 됨으로 建築主를 說得하여서라도 正常的인 形의 健全한 住居로 機能的이고 經濟的인 丹正한 住宅의 平面과 立面, 断面이 바람직하다.

6. 断面計劃과 外觀

構造의 不合理한 断面 力学도 無視된 構造 不必要한 層高의 断面들은 内部空間이 無視된 圖本으로 經濟性도 疑心된다. 또 때로는 断面과 外觀의 不一致한 既成品의 無誠意가 버젓이 提出되며 階段이 안맞고 있다. 近來에 까지 파라넬이 벽돌 半장으로 法規未達에 指適되고 있으며 防寒壁, 屋上斷熱의 不實, 窓의 물마감, 타일붙인 아-취의 外觀可能性이 無責任한 圖書作成으로 發行되고 있다.

7. 集團住居의 環境造成

主로 聯立住宅, 아파아트에서의 配置가 많이 論議되고 있다. 建物の 世帶單位平面뿐 아니라 断面은 勿論 外部空間의 調和, 綠地와 自動車 駐車, 어린이 놀이터 등 多角的으로 高密度住居地로서의 高次的인 檢討가 要望된다. 아파아트團地外의 高層住居는 特히 隣近住居 生活의 被害에 對한 充分한 配慮와 災害防止까지 計劃에 反映된 改新的 住居 아이디어가 바람직하다.

8. 都市計劃上에서 본 建築

土地의 効率的인 使用과 市民에게 視覺被害가 안가고 不正形袋地의 將次整備를 對備한 配置 커뮤니케이션의 場을 가진 集團住居의 配置, 綠地確保, 都市計劃이 未確定임으로 研究進行途中에서의 어려운 諸般問題들이 많으나 必然的으로 닥쳐올 人口, 自動車의 急增에서 나타날

都市疎通을 念頭에 둔 配置, 研究는 꼭 檢討되어야 한다.

9. 都市全体로 본 建築

于先 都市 景觀을 害치지 않아야 한다. 漸次 非人間化 되어가는 大都市의 自然을 그나마 都市民에게 되찾아주고 남겨놓을수 있는 規模의 垜地確保와 大規模建築과 超高層化의 仰制, 古建築 文化財周圍의 廣場 確保를 都市 外部空間의 黙殺과 塞蔽, 交通量의 激增等を 未然에 防止할수 있는 計劃이 必要하다.

10. 法規의 適用으로 본 建築

法 原来의 立法精神은 最惡의 境遇를 防止하는 程度로 理想을 指向한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現行法의 合法만이 올바른 建築은 되지 못한다.

建築法에 의하면 住居地域의 建弊率은 60%로 되어 있으나 建築法이 立法되던 때의 서울시 人口와 現在 서울시 人口 또는 自動車數 其他 科學, 技術, 經濟, 社會의 構造는 急速하고 많은 變化를 가져왔다. 그러나 建築法自体가 미처 都市의 變化를 못따른 點 또는 現行만으로는 不合理하게된 法도 있다는 點을 于先 理解하여야 한다. 委員會에서 法規는 原則적으로 다루지 않으며 法은 어디까지나 市에서 合法 与否를 執行한다. 그러나 審議나 施行過程에서 現行建築法의 不合理한 點이 있으면 檢討하여 現實에 맞도록 是正建議할 수는 있다고 본다.

그러나 建築士들의 審議圖書提出을 보면 設計計劃이나 設計創作이라기 보다는 法의 完全한 圖面化 乃至는

設計의 合法化에 注力한 印象이 더 깊다.

法을 避한 住宅지붕의 構造體의 危險性이 一般市民들은 安全度 堅固性도 法의 保護를 받고 있다고 錯覺하고 있다. 이런 技術的인 責任이야말로 建築士들의 權限이요 責任이 되므로 法을 떠난 더 強力한 義務로 行事해야 할것이다.

수유동의 集團 單獨住宅들의 配置도 合法的이긴 하나 都市景觀의 公害는 勿論 처마와 처마끼리 서로 붙어있는 狀態로 火災延燒의 危險과 日照不足으로 因한 不健康한 住居環境도 一段 建築法規의 惡用法의 凶解에서 나타난 하나의 큰 矛盾點이라 할수 있다.

建築法에만 執着 能通한 나머지 住居環境의 無責任한 放置나 一方 建築作品 向上보다는 建築法에만 充實한 一種의 模範答案紙式으로 轉落되고 마는 設計가 많다. 合法만이 最上의 設計가 못된다는 것은 建築士로서의 榮譽로운 權限이며 建築法 以上の 權威임에도 不拘하고 모두 拋棄하고 어디까지나 法만을 따라야 하는지 再考하지 않으면 역시 代書房(司法)이라는 格下된 俗稱의 印象이 混用된 建築士로 轉落되고 말것이다.

建築主의 限定된 予算으로 잘 팔릴수 있는 비틀린 지붕을 위한 平面과 怪異한 外觀의 作成 法規의 最高值인 建蔽率의 強要에서 하루 速히 벗어나 이제부터라도 建築士本然의 姿勢로 훌륭한 調整役으로서 各自 建築全般에 關連되는 社會, 經濟, 技術, 藝術의 諸般問題들을 總括할수 있는 高邁한 비판을 가지고 科學, 經濟, 社會의 發展에 따른 必然的으로 새로 發生될 모든 條件을 스스로 探究 開拓해 나갈수 있는 役軍들이 되기 바란다.

中央大學校 芸大 建築美術學科 教授